

지구촌 20억명 대소변 오염 식수원 사용

유엔 물회의 앞두고 위험 경중 콜레라·장티푸스 등 상시 노출 "결국 부국도 물부족 직면할 것"

세계에서 20억 명이 달하는 인구가 대소변으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등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의 진단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발간한 'UN 세계 물 개발 보고서 2023'에서 무분별한 물 소비와 과도한 개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물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난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심각한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약 20억 명이 대소변으로 오염된 식수원을 사용해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소아마비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마저도 의약품과 살충제 등 화학물질,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이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리처드 코너는 AFP에 "만일 여러분이 충분히 부자라면, 어디에 있던 물을 구할 수 있다"면서 물 부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코너는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40~50%가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20~25%는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도 계속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의 방패 역할을 하는 담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현재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지역에서도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고질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물에 투자하는 자원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헝크 오빙크 네덜란드의 물 특사는 AFP에 "물 부족이 식량·보건·에너지 안보와 도시 개발 등에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발간한 이 보고서는 22~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2023 유엔 물 회의' 개막에 앞서 발표됐다.

네덜란드와 타지키스탄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 12명과 장관 100명 등 6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 부족 문제 해결과 깨끗한 식수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물 부족은 관한 국제조약이나 전담 유엔 기구가 없는 탓에 국제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유엔에서 이와 관련해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은 1997년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회의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공식 만찬서 축배 드는 중러 정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 내 그라노비타야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기시다 전세기·열차로 극비리 우크라 방문...바이든과 같은 경로

2차대전 이후 전세기 방문 첫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방문은 극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비밀리에 추진됐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기시다 총리가 현지 방문을 강하게 희망해 실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를 방문 중이던 기시다 총리는 20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대사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뒤 밤 10시께 뉴델리 호텔로 돌아왔다.

일본 외무성 직원은 총리 수행 기자단에 이날 총리 일정이 더는 없다며 정상회담에 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애초 21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도쿄로 돌아오는 대신 이날 밤 뉴델리 팔람 공군기지에서 정부 전용기 대신 전세기를 타고 폴란드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극소수의 인원만이 관여해 준비를 진행했다.

총리 총리의 외국 방문에는 총리관저와 외무성, 방위성, 자위대 등의 다수 직원이 관여하지만, 이번 방문에는 사전 정보 유출을 우려해 총리관저와 외무성 극소수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열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시점인 21일 낮 12시 15분께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공식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침공한 이후 처음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투가 진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한 첫 일본 총리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이 G7의 강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하는 자세를 보이고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찾으면서 G7 정상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을 밟지 않은 정상은 기시다 총리가 유일했다. /연합뉴스



불타는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 숫자 모형 프랑스 시민들이 21일(현지시간) 서부 르망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시위 도중 '헌법 제49조3항'을 의미하는 숫자 모형을 불태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연금개혁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하겠다고 입법을 강행했다. /연합뉴스

세계 자동차업계, 中 대신 인도에 앞다퉈 투자

중대형·SUV·전기차 판매 늘어

세계 자동차 업계가 최대 시장인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줄자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저가 소형차가 지배하는 시장 특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러나 소득 증가와 함께 자동차 구매 패턴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본 نيسان자동차는 지난달 동맹 관계인 르노와 함께 6억 달러(약 7천840억원)를 투자해 인도에서 6개 신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대차도 지난 13일 제너럴모터스(GM) 인도 공장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에는 5억 달러(약 6천540억원)를 투자해 2028년까지 인도에서 6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폭스바겐(폴크스바겐)은 지난해 8월 마힌드라·마힌드라와 5종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부품 공급 계획을 맺었다.

인도 타타자동차도 올해 초 2종의 전기 SUV를 선보이는 등 시장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중국, 미국에 이른 세계 3위의 시장으로 판매량 기준으로 일본과 같은 규모이다.

경영컨설팅 업체 아서 D.리틀은 현재 연간 380만대 수준인 인도의 승용차 판매량이 2030년까지 75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곰돌이 푸' 홍콩서 개봉 취소...시진핑 때문?

"하룻밤 새 결정, 우연 아닐 것"

홍콩에서 영국 공포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이 당국의 상업 허가를 받았지만, 극장 측의 상업 거부로 시사회와 개봉이 갑자기 취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 영화의 배급사 VII필러엔터테인먼트는 로이터에 극장들이 전날 갑자기 상영을 거부하면서 개봉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소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곰돌이 푸: 피와 꿀'은 23일 홍콩 32개 상영관에서 개봉될 예정이었다. 앞서 21일 시사회를 기획한 무비매틱은 기술적인 이유로 상영을 취소한다고 당일 공지했다.

배급사는 "당연히 우리는 매우 당황했고 실망했다"며 "우리가 모든 상영 준비를 마친 후에 극장들

이 상영을 취소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영화가 단 6개월 만에 거의 200개 지역으로 팔려나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 영화의 라이 프레이크-워터필드 감독은 로이터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홍콩)극장들은 상영에 동의해놓고 모두 개별적으로 하룻밤 새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기술적 이유를 주장하지만 기술적 이유는 없다"며 "이 영화는 전 세계 4천여개 스크린에서 상영됐다. 홍콩의 30여개 스크린에서만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과거 '곰돌이 푸' 캐릭터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교하는 움직임이 일자 해당 캐릭터를 검열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